

우리나라 장애인의 빈곤과 불평등실태

The Poverty and Inequality of Disabled People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애인들의 소득은 일반인들에 비해 매우 낮고 열악하다는 점들이 많이 지적되어 왔다. 본 고에서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4년간 장애인의 소득, 지출과 빈곤 및 불평등수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소득은 일반인 대비 2005년 67%에서 2008년 64.6% 수준이며, 점차 감소하고 있어 점은 장기적으로 일반인과 장애인의 소득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흑자율은 19.7%로 일반인의 흑자율 28.4%에 비해 8.7%p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저생계비기준으로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빈곤상태에 처해져 있는 규모는 일반인의 경우 1.6%인 반면에 장애인의 경우에는 5.1%로 일반인에 비해 3.2배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단년의 빈곤수준과 비교시(장애인과 일반인의 빈곤율이 2배차이) 장애인의 빈곤지속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들어가며

정부는 올해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초장애연금에 대한 수준과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논쟁들이 있었으며, 도입을 앞두고 있는 현실점에서도 여러 논쟁들이 있었다¹⁾. 위와 같은 논쟁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장애인들의 경우 일반인과 비교해 일하고 싶은 의지는 낮지 않지만

현실에서의 많은 제약으로 인해 근로를 통한 소득활동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²⁾.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장애인들의 소득은 일반인들에 비해 매우 낮고 열악하다는 점들이 많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에 사용된 자료들은 일시적인 조사(필요에 의해 조사된 자료의 일부를 활용)³⁾를 활용하거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1) 기초장애연금 급여수준, 지급대상 등에 대한 논쟁이 대표적이며,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2008), 「장애인연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8월, 윤상용·김태완(2008), 「장애인 소득보장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4월호, 유동철(2009), 「기초장애연금의 동향과 쟁점」, 『월간복지동향』 6월호, 보건복지가족부(2009),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공청회」, 8월 등과 언론발표문 등이 있음.

2) 손창균(2010), 「한국복지패널로 본 저소득장애인실태」,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4월.

장애인들의 소득상황을 살펴보는 정도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05년부터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동 조사자료의 경우가 소득과 지출은 물론 개인들의 장애여부, 근로상태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 장애인들에 대해 단편적으로 분석되어 오던 연구와 실태파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조사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시간흐름에 따른 장애인들의 소득 및 지출, 빈곤 및 불평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4년간 장애인의 소득, 지출과 빈곤 및 불평등수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소득변화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 지난 4년간의 소득, 지출과 빈곤 및 불평등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장애인들의 생활상의 어려움과 정부 장애인 정책에 대한 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장애인⁴⁾ 소득 및 소비실태

장애인들의 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를 살펴

보면, 먼저 장애인 소득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월 약 196만원에서 2008년에는 월 약 261만원으로 25.1%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2005년 292만원에서 2008년 405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비교해보면 동기간 장애인의 경우 소득증가가 17.8%(2005년대비 2006년), 7.7%(2006년대비 2007년), 5.2%(2007년대비 2008년)로 일반인의 소득증가율 15.5%, 10.8%, 8.3%와 점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일반인의 소득격차 축소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종류별로 살펴보면 일반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60%중반, 다음으로 사업과 이전소득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인은 공적이전에 대한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8.6%(2005년)에서 9.6%(2008년)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해 임금소득의 비중이 50%초반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전체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종류별로는 일반인과 달리 이전소득에 대한 비중(2005년 22.1%, 2008년 26.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정부분은 정부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전소득중 사전이전보다는 공적이

3) 이현주 외(2008). 『차상위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상용·김태완 외(2008) 등.

4) 본 고에서의 분석은 패널조사자료의 장애인(개인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특성상 소득과 지출은 가구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분석함. 빈곤 및 분배지수 추정시는 균등화지수를 통해 가구소득을 개인소득화하여 분석(따라서 가중치는 개인가중치를 사용)

전의 규모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05년 월 28.4만원에서 2008년에는 40만원으로 약 2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일반인의 경우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의 비중이 큰 변화 없이 80% 후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2005년 73.9%에서 2008년에는 67.6%로 낮아지고 있어 점진적으로 장애인의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소득규모에 있어서는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소득종류에 있어서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증장애인에 비해 공적이전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과 일반인의 지출수준을 비교해보면⁶⁾,

표 1. 장애인 및 일반인 연도별 소득원천별 분석

(단위: 만원, %/월기준)

구분	항목	2005		2006		2007		2008	
장애인	임금소득	104.2	(53.2)	120.9	(52.4)	125.3	(50.4)	133.5	(51.1)
	사업소득	40.4	(20.6)	47.1	(20.4)	48.1	(19.4)	43.1	(16.5)
	재산소득	8.1	(4.1)	9.5	(4.1)	12.5	(5.0)	15.1	(5.8)
	이전소득	43.2	(22.1)	53.2	(23.1)	62.6	(25.2)	69.7	(26.7)
	공적이전	28.4	(65.7)	31.7	(59.6)	37.0	(59.1)	40.0	(57.4)
	사적이전	14.9	(34.5)	21.5	(40.4)	25.6	(40.9)	29.8	(42.8)
	경상소득	195.8	(100.1)	230.7	(100.0)	248.5	(100.0)	261.4	(100.0)
	평균가구원수	3.0		3.0		3.0		3.1	
일반인	임금소득	198.1	(67.8)	226.0	(67.0)	246.0	(65.8)	269.5	(66.6)
	사업소득	60.6	(20.7)	70.3	(20.8)	77.9	(20.8)	82.5	(20.4)
	재산소득	8.4	(2.9)	10.4	(3.1)	13.8	(3.7)	13.9	(3.4)
	이전소득	25.1	(8.6)	30.9	(9.2)	36.0	(9.6)	39.0	(9.6)
	공적이전	12.2	(48.6)	15.6	(50.5)	17.2	(47.8)	19.1	(49.0)
	사적이전	12.8	(51.0)	15.3	(49.5)	18.8	(52.2)	19.8	(50.8)
	경상소득	292.2	(100.0)	337.5	(100.0)	373.8	(100.0)	404.9	(100.0)
	평균가구원수	3.4		3.4		3.4		3.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각년도.

5) 윤상용·김태완 외(2009)자료에 의할 경우 유럽주요국가 장애인 소득원천별 구성을 살펴보면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2004년 기준 노르웨이 29%, 스페인 34%, 영국 18%로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년 동일국가들의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에 대한 비중은 67%, 64%, 71%로 나타나고 있어, 근로소득의 비중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2005년과 2006년은 소비지출을 전체 생활비의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등 일부항목만을 담고 있어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표 2. 장애정도별 소득원천별 분석

(단위: 만원, %/월기준)

구분	항목	2005		2006		2007		2008	
중증	임금소득	103.2	(53.1)	112.4	(48.8)	112.9	(48.6)	131.8	(49.8)
	사업소득	24.5	(12.6)	41.4	(18.0)	33.5	(14.4)	30.2	(11.4)
	재산소득	10.1	(5.2)	9.3	(4.0)	12.9	(5.6)	19.7	(7.4)
	이전소득	56.7	(29.2)	67.3	(29.2)	73.0	(31.4)	83.0	(31.4)
	공적이전	41.4	(73.0)	43.1	(64.0)	50.6	(69.3)	56.2	(67.7)
	사적이전	15.3	(27.0)	24.1	(35.8)	22.4	(30.7)	26.7	(32.2)
	경상소득	194.5	(100.0)	230.4	(100.0)	232.3	(100.0)	264.7	(100.0)
	평균가구원수	3.0		3.0		3.0		3.1	
경증	임금소득	104.7	(53.3)	124.6	(54.0)	130.2	(51.1)	134.1	(51.5)
	사업소득	47.3	(24.1)	49.5	(21.4)	53.8	(21.1)	47.9	(18.4)
	재산소득	7.1	(3.6)	9.6	(4.2)	12.3	(4.8)	13.3	(5.1)
	이전소득	37.3	(19.0)	47.3	(20.5)	58.5	(23.0)	64.8	(24.9)
	공적이전	22.6	(60.6)	26.9	(56.9)	31.7	(54.2)	33.9	(52.30)
	사적이전	14.7	(39.4)	20.4	(43.1)	26.8	(45.8)	30.9	(47.7)
	경상소득	196.4	(100.0)	230.9	(100.0)	254.8	(100.0)	260.2	(100.0)
	평균가구원수	3.4		3.4		3.4		3.5	

주: 1) 중증은 장애등급이 1~2등급, 경증은 4~6등급인 경우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각년도.

2008년의 경우 장애인의 소비지출수준은 월 209.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정도별로 중증 장애인이 약 200만원, 경증장애인이 약 214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일반인의 월 소비지출수준은 약 290만원으로 장애인들이 일반인 소비지출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과 비교시 장애인의 흑자율은⁷⁾ 19.7%로 일반인의 흑자율 28.4%에 비해 8.7%p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경우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지출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소비지출 항목에서 장애인 및 일반인 모두 식료품비에 대한 비중이 가장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과 교통통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건의료비에 대한 비중이 2007년 8.9%, 2008년 9.2%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교육비가 12.1%(2007년),

7) 흑자율의 계산은 "(소득 - 소비지출) /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통계청에서는 흑자율을 "(처분가능소득(소득 - 비소비지출)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을 이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12.0%(2008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의 교육비에 대한 투자는 절대금액과 수준에서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인적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빈곤 및 불평등실태

여기서는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장애인과 일반인의 빈곤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저생계비를 이용한 것이 절대빈곤수준의 분석이라면, 중위소득을 이용한 것은 상대빈곤상태를 분석한 것이

표 3. 장애인 및 일반인 소비지출별 분석결과

(단위: 만원)

구분	항목	2007			2008		
		전체	중증	경증	전체	중증	경증
장애인	식료품비	52.4	52.4	52.4	54.9	52.6	55.8
	주거비	8.3	9.3	7.9	9.8	8.9	10.1
	광열수도	12.4	13.4	12.1	12.4	12.6	12.4
	가구집기	5.1	5.0	5.1	7.2	8.7	6.6
	피복신발	5.8	5.3	6.0	6.1	6.1	6.1
	보건의료	17.8	21.1	16.5	19.2	20.0	18.9
	교육비	15.9	13.7	16.7	16.3	17.0	16.1
	교양오락	6.3	4.7	7.0	5.6	4.7	6.0
	교통통신	32.4	28.5	34.0	32.6	30.8	33.3
	기타소비지출	43.6	40.6	44.8	45.7	37.7	48.7
	소비지출	200.1	193.9	202.5	209.8	199.1	213.8
일반인	식료품비	67.5			71.5		
	주거비	10.1			10.7		
	광열수도	12.9			13.2		
	가구집기	9.3			10.3		
	피복신발	9.2			10.3		
	보건의료	12.8			14.1		
	교육비	32.5			34.8		
	교양오락	10.5			11.4		
	교통통신	45.7			49.0		
	기타소비지출	58.5			64.4		
	소비지출	269.0			289.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각년도.

다. 중위소득은 중위소득 50%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빈곤선이 높아짐에 따라 빈곤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⁸⁾. 특히 본 고에서는 패널자료의 특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난 4년간 장애인의 빈곤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간단한 동태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불평등실태는 불평등분석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5분위배율과 지니계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중위소득 및 불평등분석을 위해 가처분소득은 OECD수준균등화방식(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눔)에 의해 조정된 소득을 이용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장애인 및 일반인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장애인들의 빈곤율이 일반인에 비해 두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장애인의 빈곤율이 22.9%로 일반인 11.2%에 비해 두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이후 장애인, 일반인 모두

소득상승으로 빈곤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08년은 최저생계비 기준 장애인이 13.8%, 일반인이 6.0%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 및 일반인 모두 큰 폭으로 빈곤수준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⁹⁾.

반면에 상대빈곤이라 할 수 있는 중위소득 50%기준의 빈곤율 역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절대빈곤에 비해 개선폭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정도별로 구분하여 빈곤수준을 살펴보면, 최저생계비기준에서는 경증장애인의 빈곤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중증장애인의 빈곤수준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공적이전에 의한 지원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높아 절대적 빈곤에서는 경증장애인에 비해 나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최저생계비를 벗어나는 경우 다른 소득(임금, 사업 등)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빈곤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장애인 및 일반인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장애인	최저생계비	22.9	18.6	17.4	13.8
	중위소득 50%	37.6	37.0	36.2	33.1
일반인	최저생계비	11.2	8.6	7.5	6.0
	중위소득 50%	16.8	15.6	15.7	13.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각년도.

8)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40% 이하 수준으로 중위소득 50%를 이용함으로써 빈곤선 조정에 따른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9) 절대빈곤수준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에 비해 낮게 설정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5. 장애 정도별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장애정도 ¹⁾	중증	최저생계비	23.4	18.3	14.4	12.7
		중위소득 50%	40.7	36.5	40.2	35.2
	경증	최저생계비	22.5	18.7	18.6	14.1
		중위소득 50%	36.2	37.2	34.6	32.3

주: 1) 중증은 장애등급이 1~2등급, 경증은 4~6등급인 경우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각년도.

여기서는 패널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빈곤의 동태적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지난 4년간(2005~2008) 지속적으로 빈곤상태에 놓여져 있었는지, 아니면 빈곤에서 벗어났다, 다시 들어오는 반복빈곤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고자 한다¹⁰⁾.

아래표를 기준(최저생계비)으로 장애인과 일반인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인에 비해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빈곤상태에 처해져 있는 경우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곤의 심각성과 빈곤합정을 의미할 수 있는 지난 4년간 지속적

으로 빈곤상태에 처해져 있는 규모는 일반인의 경우 1.2%인 반면에 장애인의 경우에는 4.2%로 일반인에 비해 3.3배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단년의 빈곤수준과 비교시(장애인과 일반인의 빈곤율이 2배차이) 장애인의 빈곤지속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4년중 1년, 4년중 2년, 4년중 3년의 경우에도 일반인에 비해 역시 1.4배에서 2배까지 장애인의 빈곤수준이 높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상대빈곤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저생계비 기준에 비해 장애인, 일반인 모두 그 수준이 높

표 6. 4년간(2005~2008) 빈곤변화(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구분		4년중 1년	4년중 2년	4년중 3년	4년중 4년
장애인	중증	18.3	9.8	4.2	4.5
	경증	17.7	10.4	6.8	4.0
	전체	17.9	10.2	6.1	4.2
일반인		11.5	5.5	2.8	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년도

10) OECD의 경우 사회적배제를 측정하는 주요지표중의 하나로 빈곤의 반복성을 파악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지표에서는 지난 3년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빈곤한 경우, 3년중 2년, 3년중 1년간 빈곤한 정도를 계산하여 빈곤의 동태적인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OECD(2008), Growing unequal?).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년간 계속 상대빈곤에 처해져 있는 경우가 일반인은 5.0%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것에 비해 3배정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여 4년간 계속 빈곤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17.3%로 장애인은 5명중 1명은 지속적으로 빈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빈곤상태의 변화는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경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장애인의 경우 빈곤에 처할 확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절대적 빈곤상태는 아니더라도 상대적 빈곤으로 인해 실질적인 생활을 영유하는데 있어 장애인들의 생활수준이 일반인들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장애인과 일반인의 불평등상태를 살펴보면, 시간적인 비교를 위해 가장 최근 조사시점인 2008년과 처음 조사인 2005년사이의 소득점유율과 지니계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 소득점유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에 비해 일반인의 5분위배율 개선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니계수 변화에 있어서도 장애인, 일반인 모두 2005년과 2008년 사이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점유율상의 변화에서는 장애인에 비해 일반인의 지난 시간 하위계층의 소득개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4년간(2005~2008) 빈곤변화(중위소득 50% 기준)

(단위: %)

구 분		4년중 1년	4년중 2년	4년중 3년	4년중 4년
장애인	중증	12.6	15.8	12.0	17.8
	경증	14.9	8.6	11.4	17.1
	전체	14.3	10.5	11.6	17.3
일반인		12.9	6.8	5.0	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년도

표 8. 장애인 및 일반인 소득점유율 및 지니계수 추이(가처분소득기준)

(단위: 배, %)

구분		1/5분위	2/5분위	3/5분위	4/5분위	5/5분위	5분위배율	지니계수
2005	장애인	6.2	12.0	17.2	23.8	40.8	6.6	0.3765
	일반인	3.8	12.4	18.0	24.8	41.1	10.9	0.3679
2008	장애인	7.0	12.9	18.0	23.4	38.8	5.6	0.3490
	일반인	6.2	12.8	17.5	23.3	40.2	6.5	0.3342

주: 1) 5/5분위 점유율과 1/5분위의 비율을 말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년도

소득점유율은 지표 특성상 각 분위에 포함된 사람들의 소득을 모두 합해, 포함된 사람들 수로 나누는 평균적인 개념으로 분위상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의 규모는 동일하게 분포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산출하다보니 장애인과 일반인의 소득분위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과 달리 장애인의 경우 빈곤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분위기준을 통해 분석할 경우 장애인이 하위 분위에 더 많이 분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위내 포함된 사람들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아래 분석결과를 보면, 일반인의 경우 20% 이내에서 5분위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의 경우에는 각 분위내 분포가 하위분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2008년을 기준으로 1분위에 41.6%, 2분위는 22.6%가 포함되어 있어 전체 장애인의 64.2%가 하위계층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상위계층인 5분위에 포함된 장애인은 8.5%에 불과하고 이도 2005년에 비해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지난 4년간 소득 및 지출, 빈곤 및 불평등변화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미 여러 연구와 실태조사들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장애인의 소득상황은 일반인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의 소득이 일반인 대비 2005년 67%에서 2008년 64.6% 수준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일반인과 장애인의 소득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 할 수 있다¹¹⁾. 특히 근로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발전적 복지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국가의 이전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 수 있

표 9. 장애인 및 일반인 분위별 비율

(단위: %)

구분		1/5분위	2/5분위	3/5분위	4/5분위	5/5분위
2005	장애인	41.5	22.0	15.7	11.9	9.0
	일반인	18.9	19.9	20.2	20.4	20.6
2008	장애인	41.6	22.6	15.1	12.1	8.5
	일반인	18.7	19.8	20.3	20.5	20.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년도

11) OECD자료(fact book, 2007)에 의할 경우 비장애인가구대비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스웨덴 97%, 네덜란드 96%, 프랑스가 8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비교시 우리나라의 장애인소득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자료: 2007 OECD 통계연보(Fact book), 국정홍보처 <http://korea.kr>)

지만, 정부 이전지출만으로는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의 소득격차를 축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통해 장애인들의 소득수준이 상향조정될 수 있는 방안들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과 지출항목에 있어서도 보건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빈곤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빈곤상태에 놓여져 있을 가능성이 3배정도 높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의 열악한 소득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다.

올해는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장애연금이 시행되는 해이다. 열악한 삶 속에서 장애인들이 기초장애연금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장애인들이 소득활동이 일반인에 비해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장애연금만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근로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완비와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때 반복 혹은 지속적으로 빈곤에 처해져 있는 장애인들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비